



numbers

vol. 232

비혼동거 실태와 인식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3 국민 삶의 질
- ② 신혼부부가 예상하는 자녀 양육비

2024. 3. 19.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최근 한국의 가족 변동 주요 양상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범위의 확대, 만혼의 보편화와 비혼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률혼이 아닌 비혼동거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형태가 급속히 약화되고, 비혼 증가에 따른 저출산도 문제가 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혼 중심의 가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비혼동거가족 대상의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결과가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파악하는 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넘버즈에서 다루게 되었다.

주목할만한 결과로는 비혼동거자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거리가 있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65%)이 비혼동거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이다. 이러한 풍조는 기독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생의 비혼동거 찬성률이 64%로, 이제 비혼동거가 더 이상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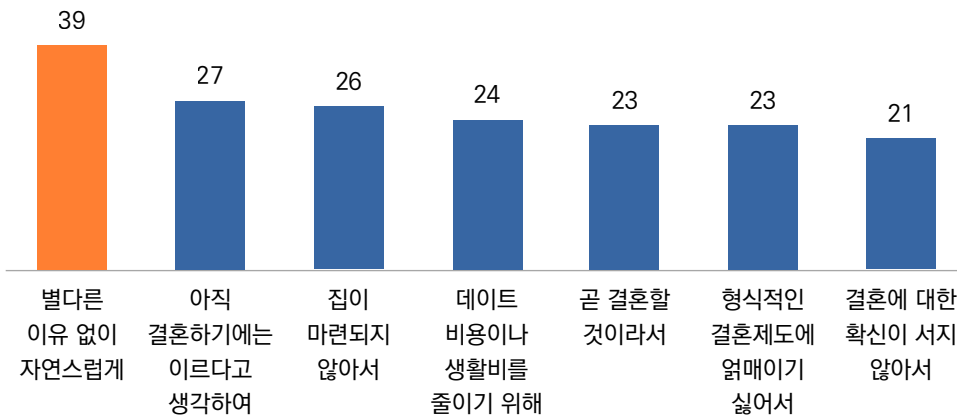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비혼동거 실태] 비혼동거 이유, '남녀 간 자연스러운 현상'!

- 현재 비혼동거자들을 대상으로 비혼동거를 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를 3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여' 27%,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26%,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24% 등의 순이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가장 많이 응답된 점은 이성 간의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욕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시대적 흐름에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그림] 비혼동거 사유 (비혼동거자, 1+2+3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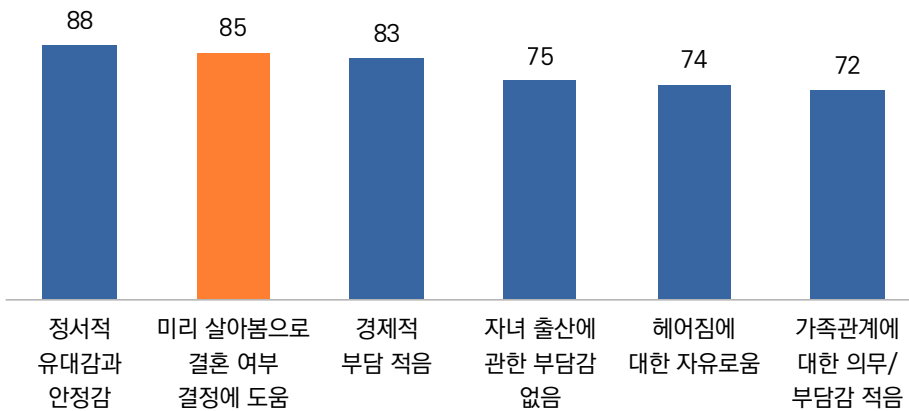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비혼동거의 장점,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에 도움 된다' 85%!

- 동거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 88%,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 85%, '경제적 부담 적음' 83%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관계에 대한 자유로움 이유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혼이 주는 유익 중 하나인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은 누리면서 경제적, 관계적 부담 등은 줄일 수 있다는 게 비혼동거의 장점인 셈이다.

[그림] 비혼동거의 긍정적인 면 (비혼동거자,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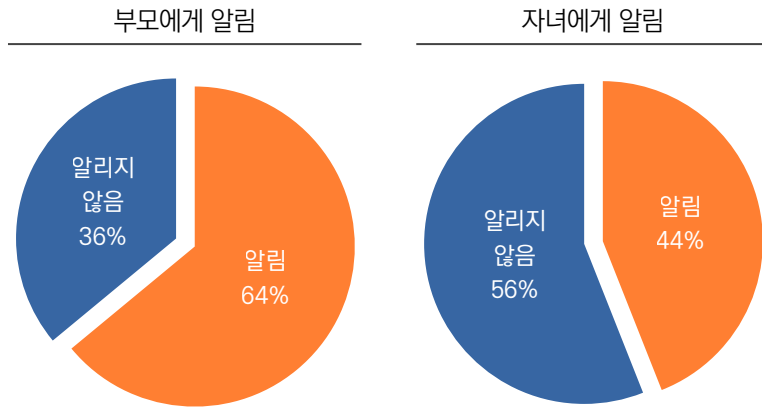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비혼동거자 3명 중 2명, 부모가 비혼동거 사실 알고 있어!

- 비혼동거자들은 자신들의 비혼동거를 부모 혹은 자녀 등 가족에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모'에게 알린 경우가 64%, '자녀'에게 알린 경우는 44%로 비혼동거자 3명 중 2명은 부모가 비혼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비혼동거에 대한 가족 알림 여부 (해당 가족이 있는 비혼동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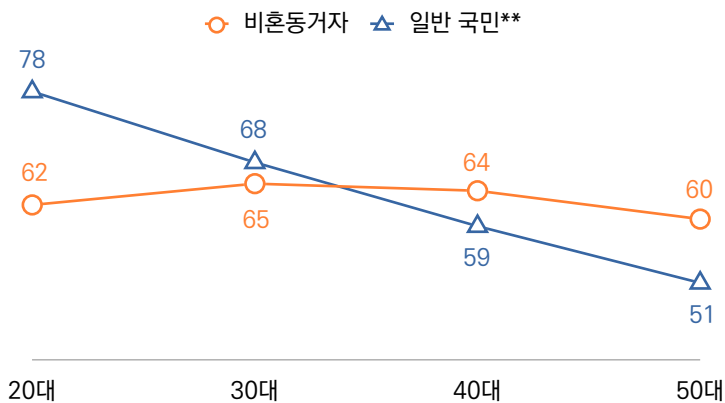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비혼동거자의 파트너 만족도, 연령별 큰 차이 없어!

- '비혼동거자의 파트너'와 '일반 국민의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를 연령별로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일반 국민이 배우자를 만족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비혼동거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동거인(배우자 vs 파트너) 관계 만족도 비교 ('매우+대체로 만족'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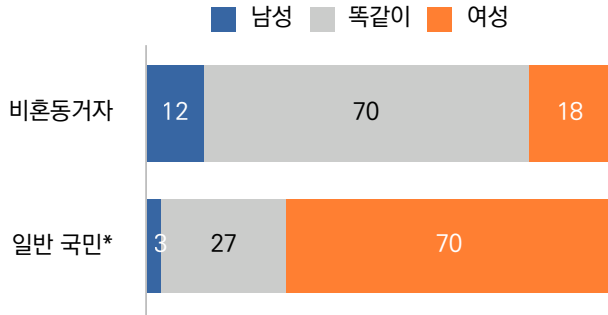
**2020년 가족실태조사

Note) 비혼동거자의 60대 표본 수가 적어 그래프에서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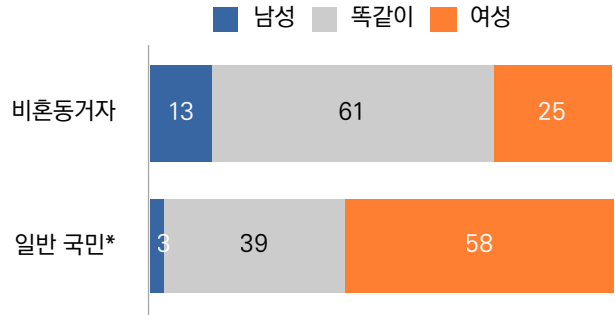
비혼동거자의 가사와 자녀 돌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남녀 평등!

- 가사와 자녀 양육·교육은 주로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가사노동(시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분담은 70%가 '똑같이'라고 응답했고, 자녀 양육/교육 분담 역시 '똑같이'가 61%로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돌이 똑같이' 하는 비율은 비혼동거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가사 수행 분담 비교 (%)



[그림] 자녀 양육/교육 분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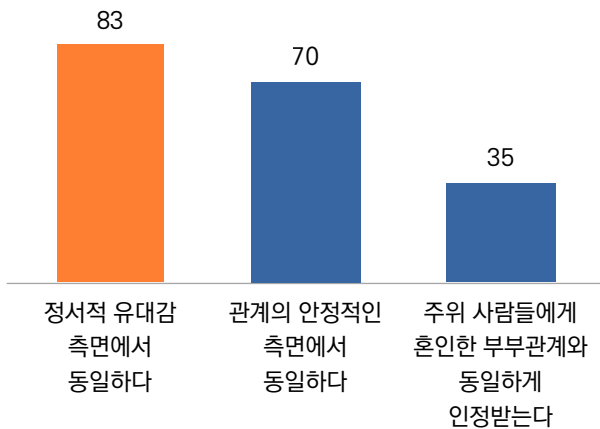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2020년 가족실태조사

비혼동거자, '실제 부부와 정서적 유대감, 관계 안정성에서 동일'!

- 비혼동거자에게 법률혼 관계인 실제 부부와 동일한 관계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묻은 결과, '정서적 유대감 측면'(83%)과 '관계의 안정적 측면'(70%)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주위 사람들에게 혼인한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에 대해서는 3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제 부부가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으로부터는 아직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법률혼 부부와 동일 관계 인식 (비혼동거자,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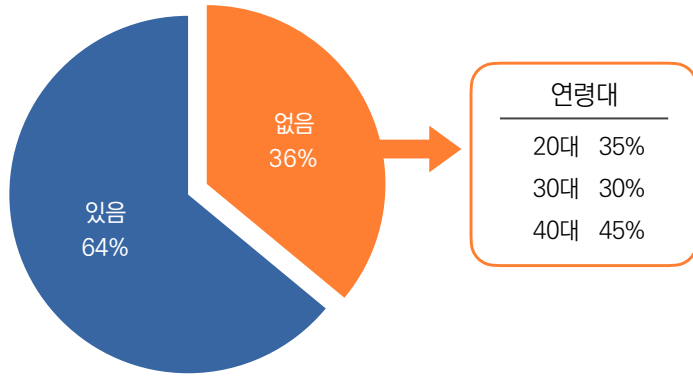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비혼동거자 3명 중 1명 이상, 현재 동거인과 결혼 계획 없어!

- 향후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와 결혼 의향에 대해서는 ‘없음’ 36%, ‘있음’ 64%로 비혼동거자 3명 중 2명만이 법률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법률혼 의향 없음’ 비율을 보면 40대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 비혼동거자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파트너와 결혼 의사가 없는 셈이다.

[그림] 향후 현재 파트너와 결혼 의향 (비혼동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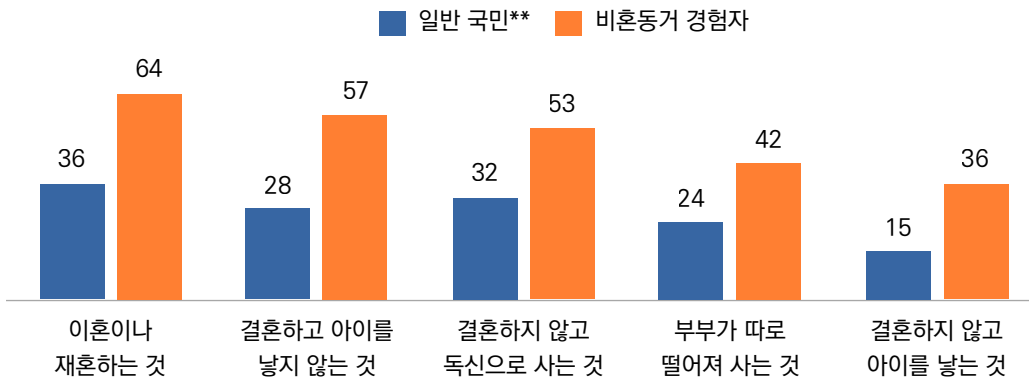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 현재 비혼동거자 1,022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02

[비혼동거자 vs 국민 인식] 가족에 관한 비혼동거자의 가치관, 매우 개방적!

- 가족에 관한 비혼동거자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이혼이나 재혼’을 비롯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서 모두 50%대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고,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 제외)’, ‘비혼출산’에서도 각각 42%, 3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혼동거자들은 일반 국민 대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등의 항목에서 크게 높아 전통적 가족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족관에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결혼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동의율 ('매우+대체로 동의'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의 비혼동거자 또는 경험자 3,007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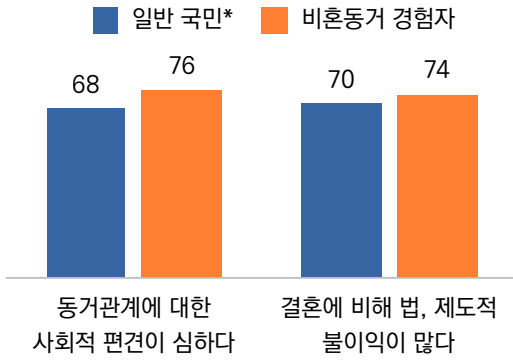
*5점 척도

**2020년 가족실태조사

비혼동거자가 느끼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

- 결혼한 부부와 비교했을 때 비혼동거 가족에 관한 인식은 어떠할까? 비혼동거자와 일반 국민에게 각각 물었다. ‘비혼동거자’의 경우 ‘결혼에 비해 동거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76%, ‘법, 제도적 불이익 많다’ 74% 등 부정적 인식이 일반 국민 대비 높았다.

[그림] 실제 결혼과 비혼동거 비교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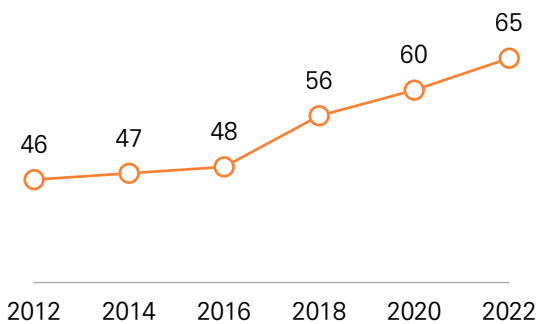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만 19~69세의 비혼동거자 또는 경험자 3,007명, 온라인 조사, 2020.10.12.~11.06.)
 *일반 국민 인식 조사 : 여성가족부,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1.05. (전국 만 19~69세 1,000명, 전화 조사, 2020.10.26.~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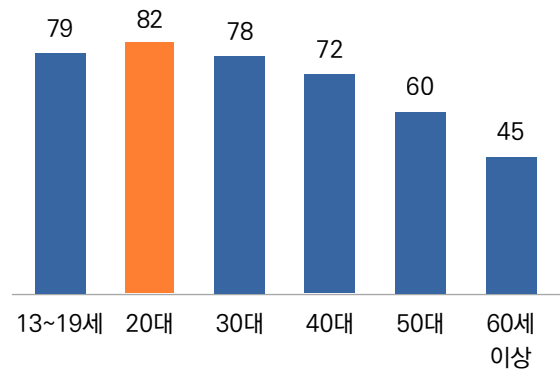
03 [비혼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 우리 국민의 '비혼동거'에 관한 인식 추이(2012~2022년)를 살펴보았다.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율은 2012년 46%로 2016년(48%)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2018년 56%로 급증, 2022년에는 65%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비혼동거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동의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비혼동거에 대한 동의율 추이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동의' 비율*, %)



[그림] 연령별 비혼동거 동의율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동의' 비율*, 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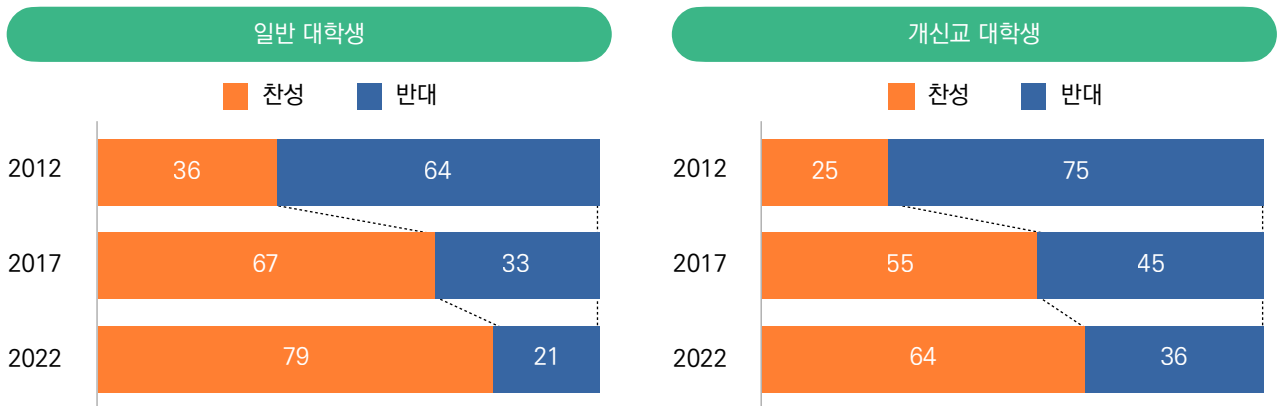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각 해당 연도 사회조사
 *4점 척도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 이번에는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인식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동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혼동거 찬성 비율은 2022년 기준 79%로 대부분의 대학생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조사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높아진 수치이다.
- 개신교 대학생의 비혼동거 인식은 어떠할까? 일반 대학생보다는 낮았으나 찬성률이 64%로 3명 중 2명꼴이었으며, 2012년 25%대비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비혼동거에 대한 찬반(‘매우+약간 찬성’ 비율*, %)



※출처:

201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2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2012. 10.(전국의 대학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200명, 면접 조사, 2012.05.14.~06.01.)

2017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2017. 08.(전국의 대학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200명, 온라인 조사, 2017.07.20.~08.16.)

202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2022.09.29. (전국 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8.17.~08.31.)

*4점 척도

대중 문화는 사회 현상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2013년 방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혼이 증가하자 ‘우리 이혼했어요’, ‘돌싱글즈’ 등 이혼자가 출연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미디어 속 비혼동거 커플은 2000년대에 들어서 자유롭고 진보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으로 등장하다가, 작년 ‘결혼 말고 동거’라는 비혼동거 커플이 등장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왔다.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별다른 사회적 반향이 없었는데, 2011년 공공기관의 기관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거를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리포트¹⁾가 나왔을 당시 여러 언론의 보도와 가정사역 단체에서의 비난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것과 비교하면 큰 온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65%)은 비혼동거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고, 청년의 경우 대부분(81%)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최초로 비혼동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에서 가장 큰 주목할 점은 전통적 결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혼동거의 가장 큰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꼽혔는데, 이성 간의 함께 있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와 비혼동거를 용인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실천으로 옮겨진 결과이다. 비혼동거의 긍정적인 면으로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 된다’가 비혼동거자 85%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한국 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주는 ‘결혼’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파트너와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4%가 ‘있다’고 응답해 상당수의 비혼동거자들이 ‘결혼’을 염두에 둔 동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기독교 대학생 역시 비혼동거를 용인하는 사회문화와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의 대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비혼동거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대학생의 경우 2022년 79%가 찬성해 10년 전 조사 결과 36%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개신교 대학생 역시 2022년 64%의 찬성률로 10년 전 조사 결과 25%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비혼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기독교 대학생의 비율이 일반 대학생과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 기독교인과 교회는 비혼동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성실히 지키게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만큼 결혼제도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말하고 있다. 결혼이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녹록지 않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훈련되는 긴 여정을 통해 부모 자녀 간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비혼동거 문화가 왜 확산하는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비혼동거자를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과 결핍을 알고 성경적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1) 한국개발연구원,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2011.11.16.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3 국민 삶의 질
2. 신혼부부가 예상하는 자녀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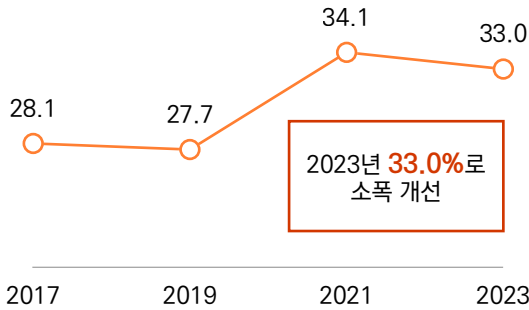
[2023 국민 삶의 질]

2023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코로나19 지나 다시 회복중!

- 통계개발원에서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지난 2월에 발간하였다. 연간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특히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보여준다. 삶의 질 지표는 총 71개인데 이번에 업데이트 된 52개 지표 중 전년 대비 개선지표는 36개, 악화지표는 15개, 동일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 넘버즈에서는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187호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4가지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변화를 간추려 소개한다.

코로나19 시기 악화 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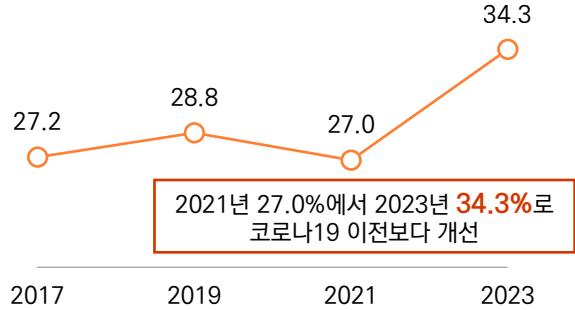
[그림] 사회적 고립도* (19세 이상,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또는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의 비율

[그림] 여가생활 만족도* (13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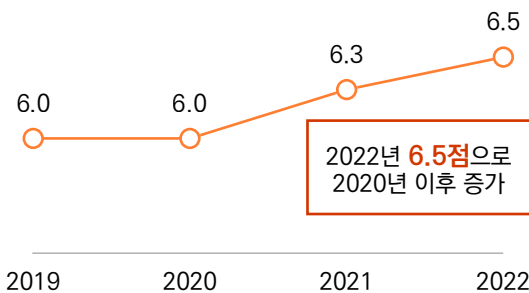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5점척도 중 '매우+약간 만족' 비율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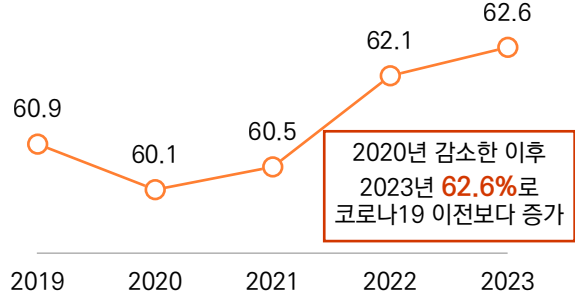
[그림] 삶의 만족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9세 이상 대상

*11점 척도

[그림]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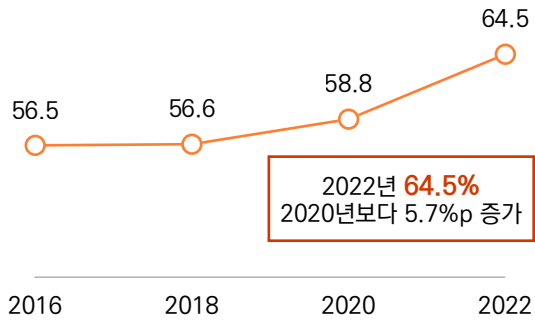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

지속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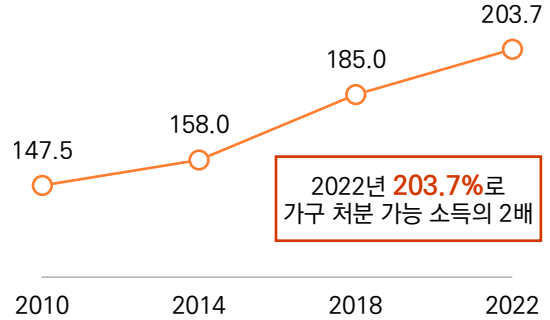
[그림] 가족관계 만족도* (13세 이상, %)



※출처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지속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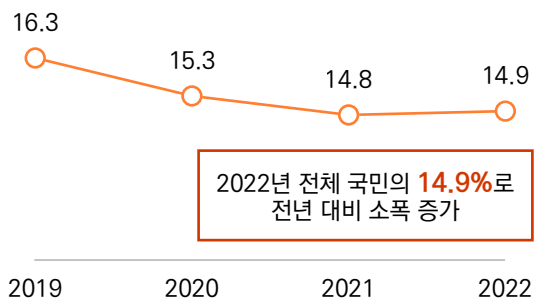
[그림] 가족 부채비율* (%)



※출처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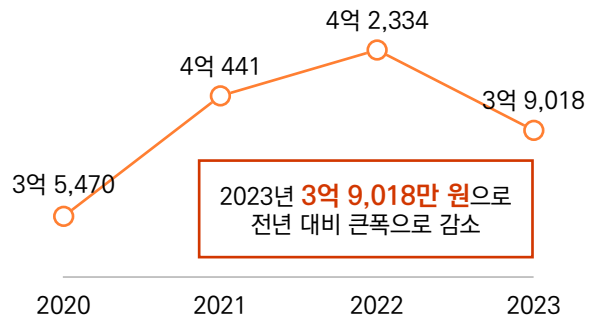
최근 다시 악화

[그림] 상대적 빈곤율* (%)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

[그림] 가구 순자산* (만 원)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2023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지표는 모두 71개 항목이다. 아래 항목들인데, 항목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국민 삶의 질 2023'을 검색하여 보고서 전문을 받아보거나, '지표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지표 최근 추세(2022년 12월 말 기준) ● 개선52개, ● 악화18개, ● 동일1개



주 ① 2022년 12월 말 기준 작성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공표된 고용률·실업률·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값이 반영되어 있음.
 ② *표시된 지표는 2년이상 주기 지표로 2022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021년 12월 기준과 동일
 ③ 개별 지표별 지표값 및 관련자료는 지표누리 홈페이지(index.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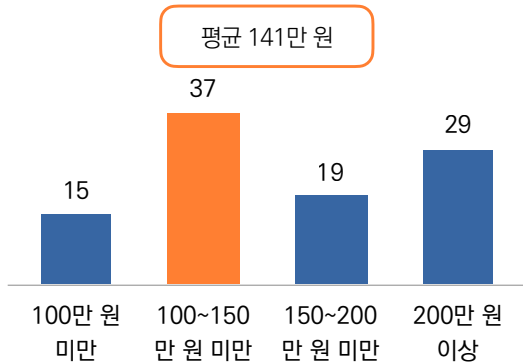


[신혼부부가 예상하는 자녀 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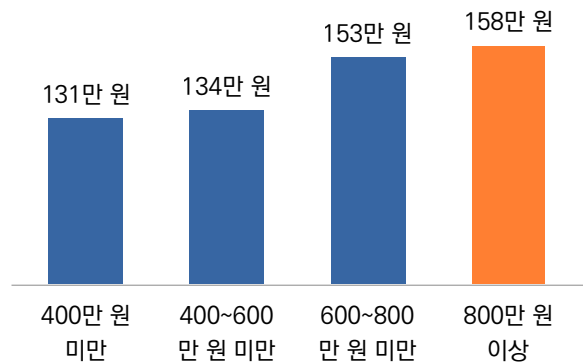
신혼부부,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 141만 원!

-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예상 자녀 양육비'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비용이 월평균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은 결과, '100~150만 원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예상 양육비는 월 141만 원으로 나타났다.
- 자녀 1명당 예상 양육비는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 비용 또한 높았다.

[그림]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
(혼인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 %)



[그림] 가구소득별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
(혼인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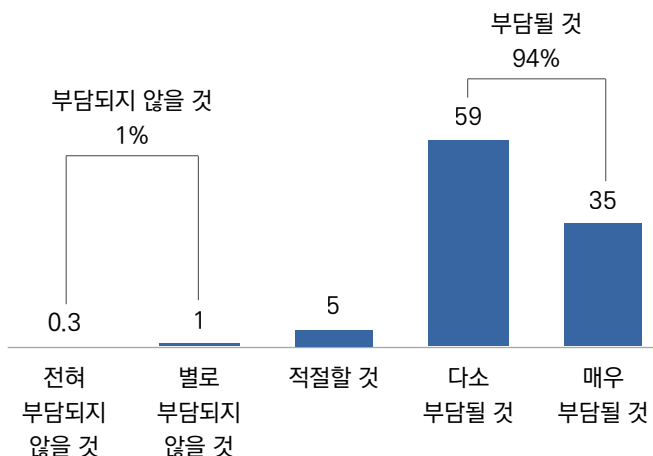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2023.12.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 대상 조사: 혼인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 300명, 웹조사, 2023.05.30.~6.08.)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비 지출, '가계에 부담된다' 94%

- 신혼부부에게 자녀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다소 부담될 것' 59%, '매우 부담될 것' 35%로 응답자 대다수(94%)가 자녀 양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1%에 불과했다.

[그림]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혼인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2023.12.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 대상 조사: 혼인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 300명, 웹조사, 2023.05.30.~6.0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8호\(2024년 3월 2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대 정원 확대'에 올랐던尹 중도 지지율, 갑자기 확 빠진 이유](#)

중앙일보_2024.3.16.

사회 일반

['맞벌이인데'...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 남성의 두배 넘어](#)

연합뉴스_2024.3.17.

[퇴직 후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3.13.

[아파트 갱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연합뉴스_2024.3.14.

[성인 절반만 "결혼 생각 있다" 46%는 "아이 안낳겠다"](#)

조선일보_2024.3.18.

[작년 사교육비 27조...서울 사교육하는 고2·3, 월 100만원 넘어\(종합\)](#)

연합뉴스_2024.3.14.

[사회적 지위 높은 직업...한국은 '국회의원', 미·독은 '소방관'](#)

문화일보_2024.3.17.

[성평등\(Gender Equality\) 관련 인식](#)

한국갤럽_2024.3.14.

[2024 등산 경험 및 국내 등산 문화 관련 인식 조사](#)

트렌드모니터_2024.3.6.

[자국 연루 전쟁 반발 시 나라를 위해 싸울 의향](#)

한국갤럽_2024.3.11.

청년 · 청소년

["학생 39% '통일 불필요'... '통일 필요' 응답 첫 절반 아래로"](#)

연합뉴스_2024.3.16.

[미래 꿈꾸지만... "20대초 청년 절반은 이미 '결혼·출산 포기'"](#)

연합뉴스_2024.3.16.

경제 · 기업

[한국 기업 임금수준 월 399만8천원...일본 기업 넘어섰다](#)

연합뉴스_2024.3.1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직장 괴롭힘 행위자 20%가 사장 일가족인데... '셀프조사' 우려"](#)

연합뉴스_2024.3.17.

[30대 대기업 과장, 40대 공무원, 50대 금융맨까지 '의대 열풍'](#)

연합뉴스_2024.3.10.

["혼인신고 하면 바보"...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

중앙일보_2024.3.15.

[M "요즘 애들은" Z "젊은 꼰대네"... MZ가 갈라서기 시작했다](#)

조선일보_2024.3.17.

국제 · 환경

["아이가 1순위" 佛 육아문화... 'EU 출산율 1위' 기적 낳아](#)

조선일보_2024.3.17.

[집 대신 기차에서 17개월 산 독일 직장인... "대안적 주거"](#)

연합뉴스_2024.3.9.

[미국 Z세대 20% "난 성소수자"... 전체로는 7.6%](#)

중앙일보_2024.3.14.

건강

[골프 많이 치면 루게릭병 발병 위험...바로 '이것' 때문](#)

동아일보_2024.3.15.

["이 나이에 벌써 치매?"...조발성 치매환자 10년간 3.6배 ↑](#)

동아일보_2024.3.13.

기독교 · 종교

[美 청소년 44%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

더미션(국민일보)_2024.3.14.

[기독교인 10명 중 8명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3.14.

[美 백인 복음주의자들 '불법 이민' 위기감 가장 높아](#)

크리스천투데이_2024.3.12.

칼럼

[돈 걱정 없을 것 같은 부자, 실제론 자나 깨나 돈 생각](#)

동아일보_2024.3.17.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랑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S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주)소프트자이온(대표이사 이준호), 김형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